

## ■ ■ ■ 추억의 합격기

[1992년도 제26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 실수투성이의 수험일기



박지은

### 『학력사항』

- 대구 남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 『경력사항』

- 현) 주스위스 대한민국대사관 공사
- 외교통상부 남아시아대양지역협력과 1등서기관
- 주 뉴욕총영사관 영사
-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 I. 합격기를 쓰면서

영문학이라는, 고시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학문을 전공했고 그러므로 나에게 고시란,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공부벌레들의 어리석은 욕망으로만 보인 적도 있었다. 이처럼 고시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내가 고시에 입문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닦친 많은 문제들-예를 들면 외교관이 정말 나에게 맞는 직업인가? 외교학 비전공자로서 나이 전공과 고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내 주의에는 같이 의논할 선배나 같은 고시동기생이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나는 선배들의 합격기를 통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자칫 헤이해지기 쉬운 수험생활에 다시금 긴장과 의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일종의 보답으로써 이 합격기를 쓰고 있고 내 합격기가 2년 전 나와 동일한 위치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뭔가 의지할 곳을 찾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나는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공부로 단기승부를 걸었

다는 것, 그리고 외교학 비전경자로서 국제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로 내 수험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등 특수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서는 뭔가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외무고등고시를 택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동경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때의 나의 외교관에 대한 인식은 18세기를 넘어서지 못한, 매우 피상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외교관이란 내 남편의 직업으로서면 몰라도 나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사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또 그러한 평온한 인생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나의 18년간의 보금자리였던 부모님 곁을 떠나 서울에서의 타향살이를 시작했다. 완전히 나 혼자라는 생각,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대해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나에게서는 거의 '공포'였다. 그래서 나의 freshman 생활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것에 대해 소심하게 반응하면서 지나갔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러한 두려움이 "내가 뭔가 독립적 주체가 되었다."라는 자신감으로 서서히 변화해 갔다. 특히 서울대학교에 와서 자신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뚜렷히 인식하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많은 여학우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나의 삶을 생각해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3학년이 되었다. 이제는 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아마 이때가 내가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설계해 보았던 때였던 것 같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성으로써 외교관이 될 생각을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여성으로써 생활과 외교관으로서의 생활과 외교관으로서의 생활을 병행해 나갈 것인가?"하는 질문을 하신다. 외무부에 계시는 선배 여성 외교관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고, 사실 나의 경우에도 여성이라는 점이 내 장래를 결정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이러한 제약조건은 접어두고, 객관적으로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 대답은 '외교관'이었다.

내 생각에 개인으로서의 자아실현과 국가의 이익이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직업이 외교관인 것 같았다. 즉 국익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바로 자신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고, 또 자신의 발정은 곧 국가의 위신과 연결된다. 또한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를 대표하므로 그의 행동의 결과가 국민 전체와 세계에 미치게 되는 중요성도 갖는다. 이러한 매력으로, 나는 외교관을 선택했고, 또 3차시험(면접시험)에서는 떳떳하게 "여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외교관의 생활을 더 중요시 하겠다."고 대답했었다.

어쨌든 내가 외무고시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거룩한 사명감이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연한 동경과 우연에 의해서였고, 그런

만큼 기필코 외무고시를 합격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약했으며 항상 나의 선택에 대해 회의와 불안감을 가졌다.

많은 고시선배들이 말씀하시기를 “고시 합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이다.”라고 하여 나도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진로에 대한 확신은 시험합격의 원동력과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나처럼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꼭 붙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으므로 여유있게 시험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후에 시험공부의 과정과 연수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질 수 있으므로 나는 만약 누군가가 외무고시를 택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시작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 III. 시 험(제26회 외무고등고시)

1년 동안의 공부에 합격에 70%를 차지한다면 단지 4일간의 시험이 합격결정에 30%는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만큼 시험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답안지를 쓸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첫째, 창의적인 답안지를 쓰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 26회 국민윤리 (1)번 문제는 남·북한 통일정책을 비교·평가하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 문제는 국민윤리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고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남한의 민주·자주·평화통일 노선을 부각시키고 북한 통일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국민윤리 최고득점자의 답안은 혁신적이었다. 즉 북한의 통일정책은 일관되어 있는데 반해 남한의 통일정책은 수

시로 변하여 일관성이 없고 그로 인하여 대외 이미지상으로도 남한이 통일에 무성의한 것처럼 비쳐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요점만 간단히 그리고 명확하게 기술하라는 것이다. 사실 처음 고시에 이분하여 2시간 동안 3문제에 대해 답안지 10장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 그런데 의외로 시험에 임했을 때 답안지에 들어가는 양은 많지 않았다. 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답안지를 조금 더 채우기 위해 별로 관련도 없는 문제들을 가져와 설명하다가 본론은 거의 언급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경제학 (2)번 문제는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이었는데, 나는 이를 Keynes의 화폐수요이론까지 들먹이다 보니, 요점이 소홀해 졌다. 그러므로 특히 작은 문제의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에 철저한 것이 요구된다.

### IV. 제3차시험(면접시험)

사법시험·행정고시에 비하여 外試의 면접시험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에는 많이 약화된 것 같다. 제26회의 경우에는 33명을 2차시험에서 합격시켜 이의 10%인 3명을 3차시험에서 탈락시켰지만 3차시험 과정 중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3차면접은 오전에는 개별면접을 통해 주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외교관이 된 동기를 묻고, 오후에는 집단토의가 있는데 누구나 대답할 수 있으며, 면접 당시 가장 문제시 되는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토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경우 1990년대의 한국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었는데,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해 왔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면접관의 의도는 우리의 지식을 시험에 보기 보다는, 우리가 토의하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 같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발표하고, 남의 의견을 잘 듣는 태도에 유의하면 좋겠다.

## V. 맺는 말

나는 누구보다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는 편이다. 특히 수험준비 중 1년 6개월만의 단기합격을 추구함으로써 조급한 마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했다. 그러다 보니 후회도 많고 여러분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앞서 합격기가 너무 내용이 딱딱하고 설교적이고, 내가 아는 공부방식이 완전한 것 같은 자만심을 가지고 서술된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므로 약간의 도움은 되리라 믿는다.

특히 수험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전공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

았으면 좋겠다. 외교학 비전공자가 고시를 택한 경우 전공공부가 무시되기 쉬운데 대학시절의 추억이나 또 자신의 전문분야를 가지기 위해서도 전공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공을 통해,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얻을 수 있다면, 고시답안의 작성이나 장래 외교관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험을 계획 준비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합격만을 목표로 했으므로 솔직히 연수원생 활동에 적응하기 힘들다.

특히 국제법과 외국어 공부를 함께 하면서 나의 무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던 재경이 선배, 경제학과 재정학의 접근방법을 그리고 초보고시생이었던 나의 합격으로 인도해 주었던 성원, 그외 4열람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많은 친구와 선배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